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선다

장수군, 공모사업 선정... 200억원 투입 전북 최대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장수군이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에서 1개 시·군만 선정되며, 올해 전라북도 대표 시·군으로 장수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장수군을 포함해 전남 장성군, 경북 예천군, 경남 밀양시 4개 시·군이 신청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각축을 벌였으나 지난 2년간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꾸준히 예산을 도입해 기반을 준비를 갖춘 점과 정치권과 전라북도 그리고 장수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수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장수군 단일 공모사업 기준 역대 최고금액에 선정된 사업으로 군은 총사업비 200억원 중 1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3년까지 장수군 두산리 일원에 축구장 8배 크기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농공단지 인근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약 11ha 규모)에 조성되며, 5.5ha 규모의 경량철골비닐온실(4개동)과 ICT시설 정비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한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군은 토마토, 쌈 채소, 오이, 파프리카 등 장수 지역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30명의 청년농에게 3년간 임대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싶지만 온실 조성 등 막대한 예산으로 농업을 포기했던 청년 창업농들에게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임대해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재배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수군은 급격한 인구 유출 증가로 최근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인구유인책이 필요

한 가운데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선발공모 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자와 장수군 청년농 신청이 가능하다.

이희성 부군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어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수군이 전라북도 동부권 스마트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 2일 삼한방약초센터 2층에서 이준택 덴마크 한인회 회장과 진안홍삼 브랜드의 덴마크 진출 및 유럽 한인사회의 현안을 다루고,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가운데 이준택 회장, 오른쪽 김정배 단장)

진안홍삼 브랜드, 덴마크 진출 시동

덴마크 한인회장과 상호교류 활성화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3일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 이하 사업단)이 덴마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사업단은 홍삼한방약초센터 2층에서 이준택 덴마크 한인회 회장과 진안홍삼 브랜드의 덴마크 진출 및 유럽 한인사회의 현안을 다루고,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준택 회장은 "덴마크는 클린테크,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해양산업, 디자인 등이 핵심 산업 분야로 제시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우수한 사업인프라,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혁신환경 제공 등 유럽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나라로 꼽히는 국가"라며 "최근 K-Pop, 한국드라마, 한국 공산품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 한국 식품 수요가 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진안홍삼 브랜드의 우수한 홍삼·한방 제품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배 단장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특구지역인 진안군에서 생산한 진안홍삼 제품들이 덴마크를 시작으로, 진안홍삼 브랜드의 세계화와 더불어 북유럽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덴마크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품의 가격 인증 지원 및 관내 가공업체와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한 판로 구축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미국, 중국 등지에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수출을 이어가고 있어 해외 진출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방공무원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맞손'

장수군-장수소방서, 업무협약

장수군은 3일 장수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수 치유의 숲 프로그램 제공 등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희성 장수부군수와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방공무원 대상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림교육·치유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 및 홍보,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등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장수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장수 천천면 일원에 조성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희성 부군수는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 특성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힐링의 명소가 되는 장수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디랜드 어린이날 행사

무주군은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무주군을 찾는 가족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무주반디랜드 일원에서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과 참여형 체험부스 운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코믹키즈 마술공연과 별론버블공연 등 무대행사와 함께 곤충방향제, 캐리커온도게 등을 만드는 공예체험부스 8동과 에어바운스, 양궁 체험, 버블체험 등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한풍루 일원 빛의 디자인 조성사업 마무리

국가 보물로 지정된 한풍루 일원에 빛의 디자인 조성사업이 마무리 돼 관광객들에게 빛을 활용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무주 한풍루 일원은 무주군에서 개최하는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군은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한풍루 일원 빛의 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착공해 2일 마무리했다.

한풍루 누각을 밝히면서도 과도한 빛으로 문화재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연출했으며, 아름답고 품격 있는 문화재 야간경관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무주의 역사자산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한풍루 주변에 식재된 벚나무와 소나무 등에는 간접조명을 통해 수목의

수형을 부각시키면서 어두운 공간을 밝고 따뜻하게 개선했으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와 공원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많은 이들이 한풍루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장소는 야간 프로그램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으로, 축제 시에는 이벤트 조형물과 경관조명 등 특화된 콘텐츠를 첨가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간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2025년)과 연계, 남대천 주변 수변축과 녹지축이 조화된 야간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치유숲서 농촌생활기술학교 실시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농촌으로 가는 길(대표 성여경)의 귀농귀촌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농촌으로 가는 길의 귀농귀촌 준비과정은 농식품부에서 12년 연속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귀농귀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교육비의 7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해 교육생들이 큰 부담 없이 교육 참가가 가능하며 올해에는 총 5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

1기는 5월 2일~6일까지 4박 5일간 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치유 숲 등 진안군 일원에서 열리며 낮시간에는 실습 위주, 야간에는 이론 교육을 실시해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준비를 돕게 된다.

주요 이론과정은 ▲지자체 귀농정책, ▲귀농 컨설팅, ▲귀농 정착 시 시기 피해방지, ▲본인에게 맞는 귀농 귀촌 지역 컨설팅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귀농 귀촌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습 과정으로는 ▲보일러, 전기, 배관, 수전 등을 고치는 집안 다루기 프로그램, ▲용접, 적정기술, 로켓스토브, 텃밭 가꾸기 등을 다루는 집 밖 다루기 프로그램 등도 함께 구성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공체육시설 전면 개방

진안군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에 들어서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4월 25일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전면 개방에 따라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문예체육회관, 공설운동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 신청이 필요한 시설은 진안군 홈페이지 체육시설 통합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